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문



강릉시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문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은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각 지역의 고른 발전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혁신 도시 유치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강릉은 이제 강릉선 KTX를 비롯한 추가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으며, 올림픽을 치르며 확충된 올림픽 유산은 국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릉은 세계의 축제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글로벌 평화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올림픽의 감동을 재현하고, 전 세계는 강릉을 동계 스포츠의 도시로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과 달리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8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외면과 무관심의 태도로 올림픽 유산관리와 동계체육 진흥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강릉은 동서고속전철, 플라이강원, 양양고속도로를 통해 교통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혁신도시 유치 때 준비한 33만^m² 사업부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부지매입의 경제성 등에서도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계올림픽의 유산인 경기장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전과 함께 동계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강릉으로 이전한다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성장이라는 실리 및 올림픽 평화정신의 계승이라는 명분, 2개를 모두 잡을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가균형발전과 올림픽 평화정신 계승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이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 12. 17.

강릉시의회